

## 전 세계 사목자에게 보내는 데 쓰일 모델 편지

(가능한 한 많은 개인과 그룹이 전 세계의 주교, 사목자, 사제에게 응답을 듣도록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내기를 요청드립니다.)

2021 년 8 월

공경하올 주교, 사목자와 사제 분들께,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올 가을 지역 차원에서 시작될 공동합의성에 관한 시노드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걷고 식별하며, 또 전망하고 복음화하는 일에 하느님의 백성 전체가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새 계명'으로 다스리는 평등한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는 성찬례를 거행하고 신앙을 살아 있게 하는 평신도 남녀 모두가 이끄는 '가정 교회'로 모였습니다. 군주제를 모델로 하는 현재의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인 교회는 그리스도가 상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갈 3:28). 하느님 백성인 평신도는 교회이며, 우리는 시노드 과정에서 하느님 백성의 더 큰 참여를 원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열망에 부응합니다.

우리는 시노드가 소공동체와 본당에서 시작하는 '상향식' 과정에 초점을 뒀야 한다고 이탈리아 주교들에게 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5 월 24 일)에 힘을 얻습니다. 교황님은 인내와 더불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말하고 "하느님의 백성의 지혜"에 여지를 주라고 요청했습니다.

성령께서 듣기 위해서는 하느님 백성인 평신도들이 전체 시노드에 온전히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세 시노드에서 진행되는 <의제개요>와 모든 토론에 다음 주제가 포함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회가 더 환대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방법
- 교회 사도직에서 여성의 역할
- 이혼 및 재혼한 이들이 성사에 참례할 수 있는 길 모색
- 교회에서 LGBTQ 공동체에 속한 이들의 자리
- 교회의 공식 구조에서 소공동체(SCC)의 역할
- 사제가 없는 본당과 소공동체에서 봉사하도록 양성된 평신도의 지위 및 역할
- 성직자의 독신이 선택 사항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

- 성직자의 성학대, 재정 유용 및 교회 내 권위 이행에 있어 투명성과 책무성

우리는 교구 시노드가 우리 교구에서도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이들과 협력해 여는 모든 평신도 주도로 이루어지는 청취 세션을 주교, 사목자, 사제 분들이 지원하여 평신도 참여가 다양한 좋은 의견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구 시노드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와 협력과 헌신으로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중요한 행사에 함께 협력하도록 주교님(사제)의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